

제16절 황보리(黃堡里 : 1·2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구산리(邱山里)와 접(接)해 있고, 서쪽은 평해읍 오곡리, 월송리와 인접해 있으며, 남쪽은 월송리와 굴미봉(掘尾峰), 금강들을 안고 있다. 황보1리 마을회관은 2008년에, 황보2리 마을회관은 1999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 노동[황보1리]

조선시대에는 평해군 근북면(近北面)에 속했으며, 과거 노씨(魯氏)가 많이 살고 있던 마을에 큰 화재(火災)가 발생하여 노씨(魯氏)는 떠나가고 황씨(黃氏)가 남게 되자 자기들의 성씨(姓氏)인 황(黃)자와 그 마을에 있었다는 큰 보(堡)자를 따서 황보(黃堡)로 불렀다고 전한다.

(1) 사기막(砂器幕)

노동(魯東)의 서쪽 황보리 위에 있는 마을로 사질토(砂質土)를 이용하여 사기를 굽던 막(幕)이 있었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2) 금강[황보2리]

(1) 다리목

금강(錦江)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기성면과 평해읍을 잇는 큰 석교(石橋)가 조성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2) 섭실골

신곡(薪谷)이라 하며 노동(魯東)의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쉼나무가 무성(茂盛)하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3. 가구 분포

총 98세대가 거주하며 노동마을인 황보1리에는 49세대가, 금강마을인 황보2리에도 49세

대가 살고 있다. 황보1리에는 순흥 안씨(順興安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안성 이씨(安城李氏) 등이 세거하며, 황보2리에는 전주 이씨(全州李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봉화 정씨(奉化鄭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노동서원(魯東書院)

노동서원은 울진 유림이 1816년(순조 16)에 건립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배향한 서원이다. 창건 당시 강당, 사당, 동·서재, 전사청, 주사, 내삼문, 외삼문을 갖췄으나,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1913년 중건하면서 강학소(講學所)와 사당이 현존한다. “송시열의 나라”라고 지칭할 만큼 조선 정치사회사를 아우른 정치가, 도학자이다. ‘도덕적 카리스마로 문화국가의 방향을 잡은 선비’로 평가한다.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 부자에게 사사했으며, 이이(李珥)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계승하여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주류를 이루고 일원론적(一元論的) 사상을 발전시켰다. 귀양 중 울진을 지나가다가 만은(晩隱) 전선(田銑)에게 건넨 시(詩)가 전하며 울진 옥계서원에도 배향한다.

2) 범바위

황보1리에 있는 바위의 굴속에 호랑이가 살았다 하여 범바위라 하였다.

3) 옥낭곡(玉娘谷)

황보2리에 있는 골(谷)을 말하는데 옥녀(玉女)가 이 계곡에 내려와서 놀다 갔다 하여 옥낭곡(玉娘谷)이라 전한다.

4) 옥녀봉(玉女峰)

황보2리에 있는 산봉우리로 옥녀(玉女)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옥낭곡(玉娘谷)에서 목욕한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옥녀봉(玉女峰)이라 전한다.

5) 필봉(筆峰)

황보1리에 있는 산으로 산이 붓과 비슷하다 하여 필봉(筆峰)이라 한다.